“흑피옥 도굴 막게 모든 비용 댈테니 발굴 서둘러라”

김희용씨, 중국에 촉구

광주 출신 고유물 수집가 김희용(61)씨가 초고대 유물로 추정되는 흑피옥(黑皮玉)에 대한 도굴이 성행하자 발굴 비용 전액을 대겠다며 중국 당국에 공식 발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일보 최초 보도 〈2007년 9월1일(1·4면)〉를 계기로 중국 당국이 흑피옥 발굴방침을 밝힌 이래 무려 4년 동안 발굴을 미루는 새 광범위한 도굴이 자행되고 있는 탓이다.

29일 김희용씨는 “최근 중국 국가문물국(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 국장 앞으로 흑피옥 매장지에 대한 공개 발굴을 촉구하는 문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두 70쪽에 달하는 ‘井泉文明’(김씨가 흑피옥을 생산한 문명이 샘을 주변으로 형성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 관련 문건에서 “흑피옥 발굴단 구성과 비용 등을 전액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국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 공동발굴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당국이 직접 발굴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세계 유명 고고학자들로 발굴단을 구성해 유물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 국가문물국 등 각계에 흑피옥 매장지에 대한 공개발굴을 호소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런 제안을 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지난 2008년 김씨의 지인인 백악(柏岳) 전 길림대 고고학부 교수에게 보낸 공문에서 네이멍구(內蒙古) 우란차푸(烏蘭察布)시(김씨가 중국 당국에 알려준 흑피옥 출토지역)에 대한 발굴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흑피옥 출토지를 경찰 등을 동원해 봉쇄하고 있을 뿐 뚜렷한 이유 없이 흑피옥 매장지에 대한 공개발굴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김씨는 “중국 당국이 흑피옥을 비밀리 발굴·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도굴이 성행하고 있다. 유적지가 워낙 방대해 당국이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한 대규모 도굴이 이뤄지고 있어 역사 규명과 보존을 위해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자신이 소장한 520점의 흑피옥 조각상 전부를 중국 당국에 기증하겠다고 밝히는 등 흑피옥 매장지를 정식 발굴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흑피옥=내부는 청옥(靑玉)이며 겉에는 검은 도료가 칠해져 흑피옥으로 불린다. ‘흑피옥(黑皮玉)’의 인물상들은 고대문명 조각품들에서 흔히 보이는 ‘성기과장’이 많다. 정건재 전남과학대 동북아문화연구소장이 흑피옥의 도료를 채취해 서울대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에 탄소연대측정을 의뢰한 결과 구석기 후기인 1만4300년 전(± 6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5·18 부활 상여행진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5·18민중항쟁 제31주년 기념 부활제가 열린 가운데 진도 소포리 주민들의 부활 상여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눔’으로 막내린 서른한살 5·18

한달간 전국 각지 5월정신 계승 추모행사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가 각종 추모 행사 속에 80년 5월 정신을 잘 담아내며 마무리됐다.

29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끝으로 31주년 기념행사가 막을 내렸다. 31주년 행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북,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5월 정신계승·문화·예술·학술·교육·국제·타지역연대 등 10여개 분야 50여개 행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옛 전남도청 등 시내 31곳에서 종교계·시민단체·기업 등이 중심이 돼 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대동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주먹밥 나누기와 헌혈 릴레이 행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주먹밥 나눔 행사를 통해 약 130만원이 모금됐고 530kg의 쌀이 기증됐다. 또 500명의 시민이 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기증했다.

31주년 행사위원회는 주먹밥 성금과 쌀 기증 증서를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에, 헌혈약정서와 헌혈증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전달했다.

31주년 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주먹밥 나눔과 헌혈 행사는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면서 “‘5월 대동 정신’은 앞으로 이렇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의 의미와 역사성을 알리는데 큰 비중을 둔 이번 31주년 기념행사는 ‘분신 정국 20주년’과 맞물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받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내일 비 온다

광주 어제 30.6도 올 최고

29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하는 등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이날 “동풍이 유입되면서 29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6도까지 치솟아 올해 가장 더웠다”고 밝혔다.

이는 평년에 비해 4.6도 가량 높은 것이며, 올해 광주의 낮 최고기온을 기록했던 지난 24일(29.3도)보다 더운 날씨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이번 더위는 30일까지 계속되다가 31일 비가 온 뒤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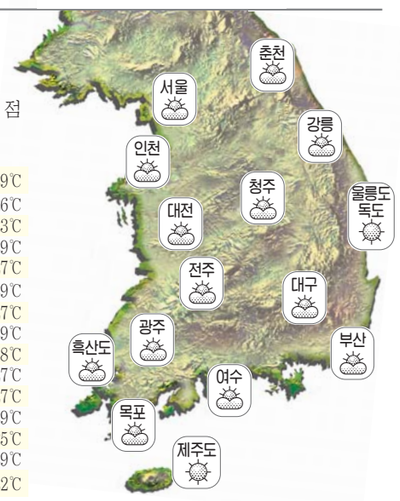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0분 해짐 19시 40분 달뜸 03시 14분 달짐 17시 20분

오늘도 무더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17/29℃
목 포	구름많음	15/26℃
여 수	구름많음	16/23℃
나 주	구름많음	15/29℃
완 도	구름많음	15/27℃
구 례	구름많음	14/29℃
해 남	구름많음	15/27℃
장 흥	구름많음	15/29℃
순 천	구름많음	15/28℃
영 광	구름많음	15/27℃
진 도	구름많음	14/27℃
전 주	구름많음	16/29℃
군 산	구름많음	16/25℃
남 원	구름많음	14/29℃
흑산도	구름많음	14/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매우높음	경고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26 12:17	05:55 17:50
여수	07:15 19:50	01:18 13: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화)	6/1(수)	2(목)	3(금)	4(토)	5(일)
날 씨						
최저/최고	17/24	17/26	15/27	16/28	17/28	17/26

국립공원의 야생화

백수정 맑은색 … 흰말머리에 비유도

〈27〉 나도수정초

‘나도수정초’는 20cm정도로 자라는 노루발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나도수정초’는 잎이 투명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부생식물로 식물이나 동물이 죽거나 썩은 후 죽은 생명체에서 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간다.

백수정과 같은 맑은 색을 띠고 있는 ‘나도수정초’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말머리를 닮아 흔히 백마(白馬)에 비유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